

수원지역 통일운동사

1. 80년대 후반 ~ 1994년

북한바로알기, 대북지원사업 등의 내용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민족의 동질성을 수원 시민들에게 알려내던 시기

-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가에서 진행 (경기대, 서울농대, 성균관대, 아주대, 한신대)
- 수원문화운동연합에서 통일엽서만들기를 진행하였고, 대중적 통일운동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확산
- 지역 통일선봉대 활동으로, 시민들에게 통일의 내용을 확산시켰다
- 전국민주화운동 경기남부연합(수원사랑민주청년회, 수원EYC, 수원민주노동자회,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, 수원문화운동연합)을 중심으로, 다양한 통일운동 전개

2. 1995년 ~ 2000년 초반

수원시민통일한마당이라는 시민들과 같이 하는 대중적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. 수원 지역의 시민사회, 여성, 종교, 문화, 노동, 학생, 청소년등이 통일한마당속에서 각계각층의 통일의 열망을 모아내었다.

- 수원시민통일한마당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적 통일운동 전개
- 1996년 수원시민통일한마당과 더불어 수원의 4개지역에서 통일한마당 전개

3.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~ 현재

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속에서 통일의 열망은 수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 활동과 각 단체의 다양한 시민참여형 통일행사가 진행되었다., 이러한 열망은 수원지역의통일운동상설체 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 결성이라는 성과를 가지게 되었다.

- 수원지역 단체들의 다양한 시민참여형 통일사업
- 615청년학생운동본부(수원청년회, 수원KYC, 수원통일사랑청년회, 수원교회청년회, 경기대.아주대 총학생회)를 통하여 수원지역의 학생들과 청년회등이 615공동선언을 알려내는 다양한 활동 전개
-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의 사회적분위기와 수원시민통일한마당행사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여, 615공동선언실천수원본부라는 수원지역통일운동상설체를 건설하였다
- 615수원본부 소속의 많은 단체들이 구별통일한마당, 동별통일노래한마당과 강연사업, 통일기행 등 다양하고 시민속으로 들어가는 통일사업을 전개하였다

*수원지역통일운동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, 정리를 하였고, 부족한 내용은 당시 활동 하였던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정리하겠습니다